목포 여름 밤바다, 목포해상W쇼와 함께 어때요?

화려한 불꽃 향연과 뜨거운 여름밤 아름다운 추억 선사

운영 이후 가장 화려하고 환상적인 불꽃쇼 선보일 예정

아름다운 목포 여름밤을 더욱 열정적이고 화려하게 펼쳐줄 목포해상W쇼 3회차 공연이 오는 24일 개최된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개최되는 목포해상W쇼는 지난 4월과 5월 웅장한 초대형 불꽃쇼를 선보이며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면서 목포 대표 야간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주말 6월 정기공연에도 목포해상W쇼가 여름밤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북돋는다.

목포시립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인기가수의 신나는 히트곡을 퍼포먼스 공연팀과 관객들이 하나 되어 즐길 수 있도록 콘서트형 불꽃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무대에 LED조명을 추가 설치해 파티형 공연과 불꽃쇼의 볼거리 수준을 높여 올해 12월까지 춤추는 바다분수가 시설 개선으로 운영되지 않은 아쉬움을 보완하고 관람객 참여 이벤트를 늘려 소통의 장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목포해상W쇼 공연중 가장 화려한 공연을 준비중이며 보다 더 풍성하고 멋진 불꽃의 향연을 준비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한 여름 밤을 목포해상W쇼와 함께 시원하게 맞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광군 방범연합회, 법성포 단오제 성공개최 위한 다양한 활동 펼쳐

영광군 방범연합회(회장 이인재)는 지난 19일 영광 법성포 단오제(6. 19.~6. 22.)의 성공개최를 위해 행사장 일원 환경정화와 야간 합동 방범순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영광군 방범연합회 임원 및 각 지대 대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장 주변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법성면 일원 범죄 취약지 합동방범순찰도 함께 실시하여 안전한 행사장 조성에 힘썼다.

영광군 방범연합회 이인재 회장은 '법성포 단오제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인 만큼 많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신 영광군 방범연합회 임원과 각 지대 대장 및 대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영광군 방범연합회는 '영광 어사또'(영광군민 어려운 사람을 또 도와드립니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죄 예방활동, 지역축제 교통지도, 청소년 우범지역 순찰,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환경정화활동,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하는 제7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종합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낙지 금어기' 맞아 어미 낙지 방류…자원 조성

무안군은 낙지 금어기(6.21~7.20)를 맞아 갯벌낙지의 자원조성을 위해 어미 낙지 약 2만 8,800미를 무안군 연안에 방류했다. 이번 방류된 낙지는 6~8월에 산란하여 가을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무안군의 낙지생산량은 남획,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조사 기준 2007년 29만 접(1접 20마리)에서 2017년 10만 접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어업소득 또한 50% 이상 줄어들고 있다.

무안군은 감소하는 낙지의 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매년 탄도만에 200ha의 낙지 보호수면을 지정하여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매년 낙지목장 3~4개소를 운영하여 2만 8,000미의 낙지를 방류했으며, 올해에도 구로어촌계 등 4개소에 8,100마리의 교접 낙지를 방류하고 어촌계에서 직접 보호·관리하여 어린낙지가 부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무안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탄도만에 낙지산란·서식장을 운영 중이며, 작년까지 약 5만 6,000미의 낙지를 방류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약 2만 마리의 어미 낙지를 방류하고, 방류 후 자원량 변화 등을 감시·관찰하여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자원조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군 정책에 발맞춰 어업인들 또한 자율적으로 낙지 자원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신안군, '제4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 개막…나흘간 개최

'제4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 6월 20일, 선수단 환영식을 시작으로 자은면 '라마다&씨원리조트'에서 총 나흘간 열리게 된다. 지난해까지 1004섬 신안 국제시니어 바둑대회로 열렸으나, 올해는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란 대회명으로 새로이 출발한다.

(재)한국기원 주최, 한국기원·신안군바둑협회가 주관하고, 전라남도와 신안군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참가국도 4개국에서 8개국(한국,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네덜란드, 호주, 태국)으로 확장했으며 신안이 낳은 세계적인 바둑 스타 이세돌 국수의 친형인 이상훈 九단도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무엇보다 한국 레전드 4인방인 조훈현, 서봉수, 유창혁, 이창호를 비롯하여, 중국의 위빈(俞斌), 뤄시허(羅洗河), 일본의 다케미야 마사키(武宮正樹), 요다 노리모토(依田紀基), 대만의 왕리청(王立誠) 등 이름만으로도 쟁쟁한 세계 바둑 전설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웅을 겨룬다.

신안=이덕주 기자

'요리조리' 장애물 피하는 튜닝카 구경오세요

24~25일 영암F1경주장서 '영암 튜닝카 레이싱 대회' 열려…즐길거리 풍성

영암군에서 모터스포츠와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6/24~25일 '2023 영암 튜닝카 레이싱 대회'가 열린다.

영암F1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지난 4월에 이어 열리는 두 번째 경기로 (사)대한모터스포츠협회 주관, 영암군과 전남도 후원의 행사.

참가 선수들은 '경기장'이란 뜻을 가진 '짐카나(Gymkhana)' 경기에 나선다. 짐카나의 기원은 군인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드럼통을 세워 놓고 장애물 경기를 했던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140m 공간에 놓인 복잡하고 엉킨 코스를 돌며 가속, 감속, 코너링 등 운전 솜씨를 겨루는 장애물 경기다. 클래스는 전륜, 후륜, 사륜구동, 경차, 4개다.

대회 관람은 무료다. 관람객을 즐겁게 할 튜닝카 전시, 체험 주행, 이벤트 주행 등 이벤트도 풍성하다.

영암군 관계자는 "튜닝 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모터스포츠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대회다."며 "영암 F1국제자동차경주장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튜닝카 대회를 인기 스포츠로 만들고, 다양한 대회도 꾸준히 유치하겠다."고 전했다.

영암군이 후원한 이달 16~18일 바이크 대회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세 번째 튜닝카 레이싱 대회는 10월 28~29일에 열린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여름철 무더위 쉼터 '탈바꿈'

함평천지종합복지관이 여름철 주민을 위한 무더위 쉼터로 탈바꿈한다.

함평군은 "2022년 생활 밀착형 정원사업 일환으로 함평천지종합복지관(함평읍 들샘길 36) 일원에 실외 정원을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광장과 녹지대 등 기존 부지를 정비해 블루애로우, 사초백록담, 꼬랑사초 등 50종 8천7백여 주의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했다.

또, 주민들이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파고라 등 휴게시설과 안개형 냉각수 시스템인 쿨링포그를 설치했다.

특히, 쿨링포그는 옥외 냉방 효과뿐 아니라 미세한 물 입자가 공기 중의 먼지를 흡착해 공기 정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김광춘 기자